

자유품새 채점규정에 근거한 심판판정 및 발전방안

송선영(원광디지털대학교 강사) · 임신자(경희대학교 교수)*

국문초록

본 연구는 기존의 자유품새 채점규정에 근거하여 현직 품새심판원이 인식하고 있는 판정의 개선과 발전방안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품새심판의 자유품새 경기에 대한 인식은 자유품새의 특징, 장점, 단점, 관람성, 아크로바틱 인식, 안전확보의 필요성, 정체성 유지 필요로 분석되었다. 둘째, 자유품새 심판들이 가지는 자유품새 채점에 대한 인식은 연출성, 기본동작 및 실용성, 서기평가, 아크로바틱 가점, 아크로바틱 기준제외로 분석되었다. 셋째, 자유품새 심판이 생각하는 자유품새 경기의 발전방안은 발전 가능성과 방향 모색, 규정개선, 채점분리 찬성, 채점분리 반대, 심판 전문성 강화, 정체성 강화, 채점기준 필요로 나타났다.

주제어 : 자유품새, 채점규정, 심판판정, 발전방안

* imsj01@khu.ac.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태권도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요소는 품새, 겨루기, 격파로 구분되며, 그 가운데 품새는 공격과 방어의 기술을 정형화된 형식에 맞추어 혼자서도 반복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된 수련체계이다. 이러한 품새는 태권도의 정신과 기술의 핵심을 모아 올바른 심신 수양과 호신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공방 원리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나타낸 행동 양식이다(국기원, 2019).

또한, 품새는 태권도 수련자가 맹목적으로 차고, 지르고, 막는 반복적 동작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자세, 손과 발의 위치, 방향, 호흡조절, 근육의 통제 등의 모든 면을 반복함으로써 근육에 힘을 주지 않고 있다가 목표한 지점에 도달했을 때 전신의 힘을 한곳에 집중하여 타격을 가하는 것으로 심신의 변화와 성숙을 품새 행동 속에서 찾는 것이다(남승우, 2007).

이러한 품새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품새가 곧 태권도이며 행동을 통하여 내재적 가치를 추구하는 수련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승단 심사를 위한 공인 품새의 수련만으로 그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품새 수련의 효용적 가치와 기술의 다양화에 대한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1992년 12월 9일 대한태권도협회는 제1회 태권도 한마당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품새에 대한 위상과 가치를 제고시키고 관심을 증대시키는 기회가 되었다(조은형, 장세용, 김용은, 엄한주, 2014).

한마당 대회 이후 품새대회는 2006년 대한태권도협회가 품새경기 규칙을 새롭게 제정하면서 본격적인 경기 품새가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세계태권도연맹에서 주최하는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는 물론 아시안게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이승진,

전정우, 2017).

특히 경기 품새의 한 분야인 자유품새는 태권도 기술을 바탕으로 안무와 음악이 함께 어우러진 품새로써(대한태권도협회, 2019) 기존 공인품새 기술의 단조로움과 지루함을 개선하고(류시현, 류지선, 박상균, 윤석훈, 2013), 품새의 다양한 기술개발과 영역 확대를 위해 제시된 새로운 변화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유품새는 국제대회에서부터 역으로 추진되었는데 2011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6회 세계품새선수권대회에서 시범종목으로 채택되었고, 2012년 콜롬비아 툰하에서 열린 제7회 세계품새선수권대회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2018년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자유품새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면서 품새 발전의 또 다른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5년 태권도 진흥재단이 주최한 태권도원배대회에서 자유 품새 종목을 처음으로 신설하였고 이어서 2017년 대학개인선수권대회, 한국체육대학교총장배(방인주, 안근아, 2019), 그리고 대통령기대회 및 대한태권도협회 장기 대회에서도 자유품새 종목을 도입하여 점진적으로 체계를 잡아가며 품새 대회 활성화를 도모하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품새의 경기화는 관중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긍정적인 평가와 대중적인 발전을 이루었지만, 판정시비의 논란이 종종 일어난다. 특히 자유 품새는 기술력의 평가가 우선시 되고 수련의 실용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경기규정 분류체계에 따른 판정에 대한 선수와 지도자, 그리고 심판 간의 불신이 표면화되고 있다.

그동안 자유품새에 대한 연구는 자유품새 경기 및 대회에 관한 연구(이승진, 전정우, 2017; 정현도, 2015), 자유품새 음악에 관한 연구(안근아, 2018), 운동강도 및 훈련방법에 관한 연구(류시현, 류지선, 박상균, 윤석훈, 2013; 서명원, 이정민, 송종국, 전민우, 정현철, 2019; 안진영, 2019), 철학적 의미에 관한 연구(권혁정, 이정기, 2019), 구성방안 및 창작에 관한 연구(안진영, 안근아, 2019; 이동희, 전정우, 2016), 평가방법 및 경기규칙 개선방안(방인주, 안근아, 2019; 전민우, 2017) 등이 있으나, 대부분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실

질적으로 경기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심판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자유품새 채점규정에 근거한 현직 품새심판들의 인식을 통해 자유품새의 채점규정에 대한 심판관정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객관적인 근거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두었다.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의 참여자 선정은 질적 연구의 대표적 표집 방법인 ‘비확률 표집’의 하나인 ‘유목적 표집법’을 사용하여 자유품새 경기의 심판으로 참가한 경험이 있는 11명을 선정하였다.

표 1. 연구참여자의 배경변인

배경변인			인원		
성별	남	8	연령	40대	5
	여	3		50대	6
현단	7단	3	심판경력	10년이하	6
	8단	7		11년이상	5
	9단	1	합계		11

본 연구의 참여자의 기본배경은 <표 1>과 같은데 성별에서 남성 8명, 여성 3명, 연령은 40대 5명, 50대 6명이었으며, 현단은 7단 3명, 8단 7명, 9단 1명이었고, 심판경력은 10년이하 6명과 11년이상 5명으로 나타났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2019년 대한태권도협회 경기규칙집 및 자유품새규정 및 자유품새

경기와 관련된 선행 연구에 대한 문헌을 고찰하여 자유품새 경기규정의 채점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2019년 7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승인한 대회에 방문하여 반 구조화된 면담법(semistructured interview)을 사용하여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연구참여자가 편하다고 생각되는 휴게실이나 숙소 로비에서 연구자가 직접 대면하여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내용은 연구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녹취 및 전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태권도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에서 질적 연구방법의 하위 검증절차인 다각검증법(imvertigator triangulation)을 실시하여 연구에 관한 결과를 도출하였다(이승진, 전정우 2017).

3. 연구 문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자유품새 심판들이 가지는 자유품새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자유품새 심판들은 자유품새 경기 채점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3. 자유품새의 발전방안은 무엇인가?

4. 자료의 진실성

자료 분석 시 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자의 주관성과 편견을 배제하기 위하여 태권도 품새전문가, 태권도 전공 교수 3인으로 형성된 전문가 집단을 형성하였으며, 소속된 전문가들은 질적 분석법 중 하나인 귀납적 분석에 훈련된 연구자로 태권도학과 교수 1인 및 자유품새 지도자로 활동한 체육학 박사 1인, 그리고 현재 품새상임심판으로 활동하고 있는 본 연구자를 포함하여 총 3인으로 구성하였다. 분석과정 및 결과 해석 단계 등 연구의 절차마다 전문가 협의를 거쳐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및 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자유품새 심판들의 자유품새 경기에 대한 인식

자유품새 심판의 자유품새 경기에 대한 인식은 다음 <표 2>와 같이 나타났는데, ‘자유품새의 특징’, ‘장점’, ‘단점’, ‘관람성’, ‘아크로바틱 인식’, ‘안전확보의 필요성’, ‘정체성 유지 필요’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심판들이 생각하는 자유품새의 특징은 기존의 공인품새가 정적이며 무도성을 지녔다면, 자유품새는 동적이고 예술성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창작성을 통해 다양한 동작을 구성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장점으로는 화려한 동작과 음악의 사용 및 고난도 기술의 활용, 화려한 동작과 아크로바틱에 대한 선수들의 열광은 관중들의 흥미를 유발함으로써 관람성을 높인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이러한 아크로바틱 동작 구사에 대하여 화려한 퍼포먼스가 많지만, 태권도 기술을 더 많이 사용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자유품새는 아크로바틱 동작이 너무 많아서 부상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안전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자유품새 발전과 태권도 고유의 정체성을 잃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컸는데 지나친 체조의 형태나 연출의 치중으로 태권도 동작이 갖는 무게감이 부족하여 정통태권도와의 괴리감을 느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동작 표현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특수 동작을 해야 하는 제약으로 인해 지나치게 화려함만 추구함으로써 흥내 내기 정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아쉽게 인식하고 있었다.

안근아(2018)는 자유품새의 특징으로 음악을 사용하고 예술성을 가미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전민우(2017)는 자유품새의 주요발차기로 뛰어 앞차기, 뛰어 옆가치, 회전, 연속 발차기, 아크로바틱 동작을 제시하고 있었다.

안진영(2019)은 자유품새의 화려한 발차기 도입이 관중의 흥미 유발 및 재미 부여에 큰 의미가 있지만, 이러한 흥미 위주의 퍼포먼스가 태권도 동작의 정체성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선수와 지도자 역시 심판들이 인식하는 것과 유사한 연구결과이다. 전민우(2017)의 연구에서 자유품새의 무도적 틀, 무도성 삽입, 그리고 제약 없는 동작의 구성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심판들이 자유 품새의 정체성 약화와 동작 표현에 있어서 제약이 있다는 점과 같은 결과이다.

안진영, 안근아(2019)는 자유품새를 구성하는 지도자나 선수들은 동작 구성 및 배치를 중요시하며, 전체적인 자유품새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요소를 아크로바틱 동작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자유품새 심판들의 자유품새에 대한 인식은 아크로바틱 동작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동적이며 예술적이고 화려한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부상의 위험과 외형에 치중되면서 태권도의 정체성이 약해지는 것 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자유품새가 태권도 동작의 화려함을 보여주는 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태권도 동작의 이질감은 자유품새의 채점에 있어 심판들에게 가장 큰 딜레마로 보여진다.

표 2. 자유품새에 대한 인식

중분류	원자료
자유품새 의 특징	품새의 무도성을 정적이라면 자유품새는 동적이며 창의성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 무도성보다 예술적 가치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무도성의 가치를 높이고 예술성이 가미되어 관중들이 재미를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공인 품새는 규격이 정해져 있어 같은 모양의 모습이 계속되는 품새인데 반해 자유품새는 개인의 창작에 의한 태권도 동작을 음악과 함께 어우러져 하며 같은 품새가 없다
	다양한 부분을 보여줄수 있으므로
	무도성이 아닌 예술성, 표현성으로 평가
관람성	품새의 정적인 것과 인격도야가 목적이 라면 자유품새는 활동적, 창의적, 고난이도의 기술점목으로 인해 잘 표현됨
	새로운 기술과 고난이도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
	다양한 기술점목으로 박진감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
	높은 난이도의 기술개발이 많이 되기 때문
	많은 고난이도 동작이 발전해서 흥미롭고 눈에 보이는 모습이 화려함 화려한 태권도 동작과 멋을 볼 수 있다.

	관중의 시선집중	정적인 부분이 많은 공연품세에서 음악을 결합 역동적인 자유품세는 많은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더욱 흥미로움, 보는 재미가 있음
		공연품세보다 흥미롭다
아크로바틱 인식		아크로바틱 동작은 화려하게 보이지만 태권도의 기술이 더 필요하다.
		태권도 동작보다는 아크로바틱 및 회전기술등이 더 많은 비율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지나친 아크로바틱 동작은 화려해서 일시적으로 호감도 있으나 태권도 동작이 더 필요하다.
		아크로바틱이란 태권도에 없는 동작이며 시범이나 공연에 더 잘 표현되고 있다.
		아크로바틱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서 태권도의 기술력이 많이 떨어짐
안전 확보의 필요		아크로바틱에 선수들이 더 열광 하는 것 같음
		정해진 규정 외 신기술 동작이 포함된 아크로바틱 2회 정도만 하면 좋겠다.
		선수보호가 첫째 이유다. 고독점을 위하여 자라나는 선수들에게 720, 1080 도는 회전하게 하는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일까?
		아크로바틱도 횡수를 제한한다면 선수 부상이 줄어들 것이고
정체성 유지필요		태권도 기술보다 점프, 회전력에 표현성을 많이 하니 선수들의 부상 방지가 필요합니다.
		선수들의 안전에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으로도 많은 손기술을 사용하기에 태권도의 장점인 발차기, 고난이도에 더 집중해야한다.
		따라서 격파를 넣으면 좋겠다.
		자유품세 아닌가, 태권도 동작이 더 많은 표현되어야 한다.
		태권도에서 벗어나는 흐름이 아쉽다.
		현재 태권도 품세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는 것 같음. 타 무술 같음 (태권도가 아님)
외형치중		너무 체조적인 것은 태권도 무에 대한 과시인 것 같다.
		보여주기식 시범이나 마찬가지로
		활성화는 되고 있지만 예술, 창작에 중점을 두다보니 태권도의 무도성은 결여되는 부분이 있다.
		무도성, 기본동작, 보다 화려한 기술에 더 활성화 되어 기본기보다 연출성에 치중되는 것 같습니다.
		정통태권도와는 약간 동 떨어진 것 같다
		태권도 동작의 무게감이 없다
		(아크로바틱)퍼포먼스가 너무 많은 것 같다
		너무 화려함만 추구함
		자유 품세에서는 모양만 내면은 된다고 생각

2. 자유품세 심판들의 자유품세 채점에 대한 인식

자유품세 심판들이 가지는 자유품세 채점에 대한 인식은 다음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이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연출성’, ‘기본동작 및 실용성’, ‘서기평가’, ‘아크로바틱 가점’, ‘아크로바틱 기준제외’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출 성에 대한 평가는 난이도 발차기를 실수 없이 차고, 탄력 있게 잘 표현하며, 음악과의 전체적인 구성력이 좋으면 연출력이 뛰

어난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기본동작 및 실용성에 대한 기준은 태권도 교본에 나와 있는 동작을 중심으로 채점하고 있고, 허리 및 몸의 쓰임, 기본동작을 정확히 수행하여 올바른 품세 동작을 수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였지만, 실전성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평가가 어려우며 단지 막고, 차기가 선명하게 투영될 경우 기본동작 및 실전성이 좋은 것으로 인식한다고 하였다.

서기에 대한 평가는 확실하지 않게 모양만 내고, 흉내 내기에만 치중하는 등 서기가 명확하게 실행되지 않는 점을 아쉬워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필수 서기를 처음 시작 시에 수행하거나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아크로바틱에 대한 평가는 심판들 사이에서 의견이 나뉘었다. 아크로바틱 동작은 기술력에서 발차기 난이도의 세부 기준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많은 선수가 전체 동작 구성에서 아크로바틱을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규정에 없는 것으로 추가된 아크로바틱 동작을 평가요소로 보지 않는 심판과 추가 동작을 더 높게 평가하는 심판으로 구분되어 나타났다. 아크로바틱에 대한 채점 기준을 좀 더 객관적으로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강희창(2014)은 동작의 난이도에 따른 차등점수 배점과 채점기준 세부항목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방인주, 안근아(2019) 역시 차기의 회전이나 높이의 난이도에 따른 채점의 가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민우(2017)는 현재 자유품세 경기의 경우 평가 기준과 애매모호한 경기규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하였으며, 정현도(2015)는 대한태권도협회와 세계태권도연맹의 채점 기준이 다른 관계로 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 혼란을 겪기도 하였기 때문에 두 단체의 통합된 채점 기준과 경기규칙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제시되었던 문제점들은 현재 대한태권도협회와 세계태권도연맹에서 수용하여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하루속히 자유품세에 관한 합리적인 규칙제정과 심판교육이 이루어져서 심판들 스스로 규정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최대한 객관적인 채점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성 제기 된다. 특히 자유품새는 공인품새와 달리 채점에 대한 고난도의 기술과 동작의 수가 훨씬 다양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경기규정에 대한 자세한 평가방법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표 3. 자유품새 채점에 대한 생각(인식)

증분류	원자료
연출성	난이도 있는 동작을 잘 구성 하고 실수 없이 표현하면 연출성에서 높게 평가한다
	아무래도 연출성에서는 추가된 아크로바틱을 우위로 평가
	연출력 가산점 부여함(완성도에 따라서 오히려 감점 요인이 더 많음)
	기의 흐름과 몸쓰임을 충분히 발휘하는지 본다
기본동작 및 실용성	자유품새는 표현력이 좋아야 한다. 화려한 발차기 선호함
	표현력의 중요도를 갖기 때문
	음악성과 전체의 연출성으로 평가 한다.
	평가의 많은 작용보다 태권도 동작으로 인정하지 않아 감점사항
서기평가	화려한 동작이 위험성은 높아지지만 화려한 면에서 판중 호응도는 좋을 것 같으나 무도적 측면에서는 손동작이 중요하다.
	사실 실용성은 보기 힘들다. 화려하게 보여질 뿐, 차는 기술이구나, 막는 기술이구나, 그나마 표현이 되는 선수에게 평가를 높이한다.
	기본동작, 실용성에는 기준에 대한 의견차이가 많다. 세분화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기본동작의 정확성
아크로바틱 가점	올바른 품새시연시
	태권도 교본에 나와 있는 동작을 재구성하여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다.
	기술력을 표현할 때 얼마나 태권도의 기본동작에 충실하며 각 항목에 해당 하는 동작을 규정대로 행하였는지를 가지고 채점 합니다.
	기준점이 있지 않아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아크로바틱 기준제외	범서기, 학다리서기는 선명, 뒷굽이는 두리뭉실
	1회적 동작으로 스쳐가듯 하는 동작을 조금 더 구체적 표현이면 좋겠다.
	서기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서기의 형태만 갖추는 것보다 좀 더 확실한 표현이 필요
아크로바틱 기준제외	서기자세가 기본동작에서 나오는 확실하지 않은 모양이 많고 흉내내기가 많습니다.
	서기는 정확한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필수서기를 아무 때가 아닌 처음 시작할 때 넣으면 제대로 선명하게 보일 것 같음
	아크로바틱, 어쩌면 아크로바틱 부분에서 점수차이 (승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크로바틱 기준제외	아크로바틱 다른 표현방법도 개선되면 좋겠다.
	아크로바틱의 실력을 보고 평가한다
	화려하게 보여질 뿐, 차는 기술이구나, 막는 기술이구나, 그나마 표현이 되는 선수에게 평가를 높이한다.
	감점사항에 중점을 두고 평가해야 하는데 원만한 아크로바틱에 두는 경향이 있다.
아크로바틱 기준제외	(아크로바틱의 높은 난이도를) 아무래도 연출성에서는 우위로 평가
	아크로바틱에 많은 평가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추가 적인 아크로바틱 동작에 큰 점수를 주지 않는다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아크로바틱 동작을 구성 요소에 넣어서 채점하며 태권도 동작의 범위를 넘어서면 채점하지 않는다.

심판으로써 기술력 아크로바틱 내용에 준하여 채점할 뿐이지 추가되고, 다른 기술을 보여 준다하여 채점에 영향은 없다.

어떤 부분은 관중들의 호응도가 높아질 수 있으나 평가에는 태권도 동작이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하기 때문에 평가를 주지 않는다.

3. 자유품새 심판들의 자유품새 발전방안에 대한 인식

자유품새 심판이 생각하는 자유품새 경기의 발전방안은 다음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이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발전가능성’, ‘발전방향 모색’, ‘규정개선’, ‘채점분리’, ‘채점분리 반대’, ‘심판 전문성 강화’, ‘정체성 강화’, ‘채점기준 필요’로 나타났다.

자유품새의 발전 가능성으로는 기존 품새형식에서 벗어나 특색있는 동작의 구성과 기술력 상승 등으로 관중들의 호응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

발전방안으로는 경기규정이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보다 자유로운 기술의 구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공인품새보다 더 화려한 동작의 구성, 다방향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심판석 위치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기술 동작의 제한보다는 시간의 연장과 손기술의 다양화 그리고 부상 방지를 위한 고난도 발차기의 고도지정 및 아크로바틱 횟수 제한 등의 규정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선수들의 동선 및 구성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면 평가를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인식하였다.

그리고 심판과 지도자가 생각하는 채점에 의한 점수에서 의견 차이가 컸는데 이러한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난이도 평가 기준을 세분화하고 명확한 채점 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심판의 의견에서도 기술력과 연출 성에 대한 채점 분리를 찬성하는 심판들과 반대하는 심판들이 있었는데 다수가 전문성 강화 및 동작의 세심한 분석을 위해서는 채점 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반대하는 심판들은 형평성 문제 때문에 분리해서는 안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채점 기준을 명확하게 하더라도 심판들이 전문화되어 있지 않으면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심판들은 음악, 연출, 기술 등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혼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강화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분리채점으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고, 나아가 기존의 심판들은 공인품새와 자유품새를 모두 평가하지만 향후에는 공인품새와 자유품새 심판의 분리도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점수표출 후 가장 많은 항의가 들어오는 이유가 점수 편차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채점 기준의 제시와 심판의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자유품새의 장점을 승화시키면서도 태권도의 본질인 무도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음을 볼 수 있다.

심판의 자질향상 및 명확한 규정책정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보면, 임신자, 오철희(2008)는 자유품새 경기 판정의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반적인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전민우(2017)는 기존의 품새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연결차기, 회전차기, 뛰어차기, 아크로바틱 동작 등 고난도의 동작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심판의 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하며, 특히 기술력과 연출력에 대한 심판의 역할 분담이나 아크로바틱 기술에 대한 심판의 자질향상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방인주, 안근아(2019)는 현재 많은 품새대회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품새 경기규칙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다고 보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회전, 높이, 착지 등 명확한 규정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현도(2015)는 자유품새의 채점 기준의 세부항목 정립과 의무규정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국제대회와 국내대회 규정의 차이는 혼란 및 경기 내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혼란을 야기하여 경기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자유품새의 발전을 위하여 정현도(2015)는 자유품새 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로운 홍보전략을 마련하고, 지도자들은 자유품새 개발 및 연구에 노력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승진, 전정우(2017)는 새로운 장르와의 융복합과 스포츠 이벤트 및 매스미디어 노출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자유품새는 공인품새와는 달리 음악을 사용하고, 회전, 도약, 아크로바틱 등 외형적으로 화려한 동작의 사용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화려한 동작은

관중들의 흥미를 유도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기원(2016)은 품세를 태권도 정신과 기술의 핵심이 반영된 태권도 기술체계 가운데 으뜸을 차지한다고 정한 것을 제시하며 자유 품세 또한 위의 범주 안에서 기술 구성을 통해 태권도의 우수성이 드러나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태권도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 주장했듯이 자유품세의 발전을 위하여 명확한 체점 기준이 확립되고 사회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유품세 역시 태권도의 한 요소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4. 자유품세 발전방안

중분류	원자료
발전 가능성	틀에 박힌 공인 품세보다 특색있는 동작과 창작이 어울어진 발차기와 손동작 때문에 발전할수 있을 것 같다.
	기술성, 예술성 및 표현성에 대한 기술력 상승효과
	관중들의 호응을 얻기에 자유품세는 공인품세 보다 더 효력 있다고 본다.
발전방향 모색	태권도 손동작과 다양한 발동작 태권도 기술력 자유로이 구성할 수 있도록 평점 제한을 받지 않는 체점을 원한다.
	현재는 현재의 규정대로 차후 보완점 연구하기
	지속적으로 다듬어지다보면 판정면에서도 발전할거라 생각이 된다
	개인적으로 자유품세는 공인품세보다 화려해지면 좋겠다.
	또한 선수의 움직임 전체를 보며 체점하느라 선수의 동작을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주의하여야 할 점이다.
	심판석 위치를 조정하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다 다양한 방향으로
	경기 규칙에 의한 시간이나 연무선이 정해진 상태로 움직여서 창의적이지 못함
	예술영역에 대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
	규정과 전체적인 구성과 흐름을 보고 평가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공인품세로는 개인의 창작, 능력을 표현하기에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다.
규정개선	동작에 제한을 두는 것 보다 시간을 10초에서 15초 늘리면 좋을 것 같다.
	몇가지 정도 (손기술)필수 동작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태권도 정체성이 없기 때문이다.
	상체와 하체의 균형을 위해 다양한 손기술의 표현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태권도 손기술 + 겨루기동작 + 시범 퍼포먼스
	고난도발차기 특히, 회전발차기는 높이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아크로바틱 차기는 선수들 부상방지를 위해서 3회 또는 4회 정도로 제한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다.
	난이도 발차기시 성공과 실패 시 점수를 규정하고 예를 들어 540도나 발차기가 성공했다면 그 다음 720도 또는 900도 발차기를 도전하게 규정을 두어 점진적 활성화 되게 하면 좋겠다.
	자유품세는 말 그대로 자유품세로 구성되어야지 더 많은 규정을 두게 되면 정적인 품세로 가는 것 같다. 따라서 경기규정이외에 격파나 추가하면 좋을 것 같다.
	어떠한 동작을 제한하기 보다 태권도 동작을 이용한 손발기술을 느리고 또는 빠르게(동적성운동)하여 조화를 만들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화려함에 점수가 많이 반영되는 것 같다. 또한 미리 선수들의 동선을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도 문제점인 것 같다.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음악과 구성을 미리 볼 수 있으면 한다.

채점기준 필요	기본동작을 기준을 뒤서 기본서기처럼 기본동작도 일정한 의무동작을 구성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창의성에 평가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난이도에 대한 평가 기준이 분명하게 서술하는 것이 필요
	자유품새의 기본동작 및 실용성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태권도 기본동작 실용성은 평가의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다.
	(평가 기준이)없기 때문에 평가가 어렵다.
채점 분리	기본동작, 실용성에서는 경기규칙에서 설명하는 기준과 경기에서 코치들이 생각하는 평가(점수)에 대해 의견차이가 많이 생기고 있다. 좀 더 세분화된 기준이 필요하다.
	기술력에 대한 기준을 확실하게 숙지하여 채점에 임해주어야 판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다.
	자세한 규정이 필요하고 규정이 확실한 채점기준 필요함
	전문성 때문에 분리 채점에 동의한다 세분화 되어 본다면 더 명확히 볼수 있을 듯하다.
	심판의 능력으로만 밀이 붙어는건 문제있다. 종합적으로 보는 파트 구분이 필요하다.
채점분리 반대	기본동작에 의한 연출성을 채점하는 경향이 있기에 분리하여 채점을 시도해볼 필요도 있다고 본다
	분리해서 채점하면 더욱 정확하게 볼수있을 하지만 시간 때문에....
	이 동작을 채점하는 심판 따로 있으면 좋다.(서기)
	기술력에 신경써서(좌중해서) 채점하다 보면 기본서기 동작을 놓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전담심판이 있었으면 좋겠다.
심판 전문성 강화	짧은시간에 여러 가지 기술 등을 평가하기가 힘이 듭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파트를 정해 평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기 동작만 전문적으로 채점하는 심판이 따로 있으면 좋겠다. 선수들이 동작을 명확히 선보이기는 하나 간혹 애매한 동작들을 사연 할 때가 있다.
	기술력과 연출성을 같이 채점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해야 한다.
	교육자 경험을 많이 했으면 한다
정체성 강화	음악성 동작과 기술을 이해하기 위한 전문성이 필요하겠다.
	음향과 조화 기술과 연출을 따로 전문성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기술면은 심판들이 볼수 있겠지만 음악과 동작이 흐름에 맞는지, 짧은 시간에 채점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 것에 문제점이 있다.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연출력을 구분해서 평가하는게 더욱 공정한 관정으로 거듭나리라 본다.
	분리 채점시 용이한 부분이 전문성으로 발전, 찬성한다.
정체성 강화	자유품새 심판도 따로 있어야 한다고 본다.
	심판 개개인의 자유품새 규정을 디테일하게 숙지한다면 판정의 이해도가 높아질 듯 하다.
	선수들이 음악제출과 함께 연출 시나리오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유품새 심판에 한하여 사건에 연출의 의미를 미리 알아두면 죽을 듯하다. 그것과 맞게 자유품새를 시연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면 좋겠다.
	화려함만 추구하기 보다는 좀 더 태권도 동작을 강화한 규정 동작으로 거듭났으면 한다
	서기에 대한 전체적으로 무도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정체성 강화	태권도 기술을 너무 많이 벗어나는 것 같아 안타깝다

IV. 결론

본 연구는 기존의 자유품새 채점규정에 근거한 현직 품새심판들의 판정 및 자유품새 판정의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을 통해 자유품새의 채점규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자유품새 심판의 자유품새 경기에 대한 인식은 자유품새의 특징, 장점, 단점, 관람성, 아크로바틱 인식, 안전확보의 필요성, 정체성 유지 필요로 분석되었다.

둘째, 자유품새 심판들이 가지는 자유품새 채점에 대한 인식은 연출성, 기본동작 및 실용성, 서기평가, 아크로바틱 가점, 아크로바틱 기준제외로 분석되었다.

셋째, 자유품새 심판이 생각하는 자유품새 경기의 발전방안은 발전가능성 발전방향 모색, 규정개선, 채점분리, 채점분리 반대, 심판 전문성 강화, 정체성 강화, 채점기준 필요로 나타났다.

스포츠는 경쟁 속에서 늘 판정 논란이 존재한다. 태권도의 경기화 과정에서 겨루기, 품새 경기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겨루기의 경기규칙이나, 공인품새의 경기규칙도 많은 시간을 지나오면서 선수와 지도자, 그리고 관중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채점 기준을 만들려고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이 자유품새로 이어지면서 이제는 자유품새에 걸맞은 최적화된 세부규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공인품새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개념의 창작품새(나르샤, 비각 등)를 만들었고, 이제는 좀 더 열린 개념의 자유품새를 도입하여 스포츠 태권도의 저변을 확대하려고 하는 시점에 있다.

따라서 각종 대회조직위원회에서 산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규정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태권도 제도권에서 통합된 경기규정 마련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판정의 중심에 있는 심판원의 수준 높은 판정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선발방법과 교육이 필요하며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인해서 판정의 오

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꾸준한 노력을 통해 선수와 지도자, 그리고 심판 사이의 판정시비는 사라지고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 강익필(2015). **태권도 공인품새 해설 II**. 서울:상아기획.
- 강희창(2014). **태권도 품새경기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탐색**.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 국기원(2019). **태권도 품새**. <http://www.kukkiwon.or.kr>
- 권혁정, 이정기(2019). 태권도 경기에서 자유품새의 철학적 의미 고찰. **한국스포츠학회지**, 17(3), 1021-1031.
- 김대영(2019). **태권도 자유품새 경기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남승우(2007). 태권도 품새의 수련 가치에 대한 고찰. **무예연구**, 1(1), 121-138.
- 대한태권도협회(2019). **품새 경기규칙**.
- 류시현, 류지선, 박상균, 윤석훈(2013). 태권도 품새 우수·비 우수선수 간 학다리 서기의 균형성 비교. **한국역학회지**, 22(1), 55-63.
- 박인준, 김현민, 마효예, 조성균(2019). 태권도 경기 품새의 사회현상 규명을 위한 질적연구. **무예연구**, 13(1), 53-81.
- 방인주, 안근아(2019). 태권도 자유 품새 경기규칙에 관한 개선방안. **무예연구**, 13(3), 145-161.
- 서명원, 이정민, 송종국, 전민우, 정현철(2019). 경기용 품새와 자유 품새의 운동 강도, 신체활동량 및 품새 경기 중 혈중 젖산 농도 분석. **국기원태권도연구**, 10(3), 101-117.
- 세계태권도연맹(2019). 홈페이지. <http://www.worldtaekwondo.org>
- 안근아(2018). 태권도 자유 품새 음악에 대한 의미 고찰. **한국스포츠학회지**, 16(4), 1139-1147.

- 안진영(2019). 태권도 자유 품새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 방안 탐색. **무예연구**, 13(3), 241-258.
- 안진영, 안근아(2019). 태권도 자유 품새 창작에 관한 연구. **무예연구**, 13(3), 163-179.
- 이동희, 전정우(2016). 음양오행(陰陽五行)으로 해석한 태권도 동작의 유형분류에 따른 자유품새 구성방안. **한국체육철학회지**, 24(4), 205-220.
- 이승진, 전정우(2017). 태권도 자유품새 도입에 따른 선수와 지도자의 품새대회 인식 및 발전방향 탐색. **국기원태권도연구**, 8(4), 357-377.
- 임신자, 오철희(2008). 태권도 품새 대회의 심판판정에 대한 인식이 태권도 선수들의 심리상태 및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17(4), 403-413.
- 전민우(2017). 태권도 자유 품새 평가방법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국기원태권도연구**, 8(4), 379-400.
- 정현도(2015). 태권도 자유 품새 경기의 활성화 방안. **세계태권도문화학회지**, 11, 55-67.
- 조은형, 장세용, 김용은, 엄한주(2014). 혼합연구방법을 적용한 태권도 품새 경기 경험 탐색. **한국체육학회지**, 53(6), 551-504.

ABSTRACT

A Study on the Judgment and Improvement Plan based on the Regulations for Free Style Poomsae

Song, Sun-Young(Wonkwang Digital Univ.) · Lim, Shin-Ja(Kyung Hee Univ.)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on the need and purpose of providing the basic data on objective basis for the grading of freestyle poomsae through the recognition of the existing standards of freestyle poomsae grading and the recognition of the methods for improvement of freestyle poomsae judgment,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First, the freestyle poomsae referee's perception of freestyle poomsae game was analyzed for the characteristics, advantages, disadvantages, visibility, acrobatic awareness, the need to secure safety and maintain identity. Second, the perception of freestyle poomsae grading by freestyle poomsae judges was analyzed in terms of directing, orthodoxy, proficiency, accuracy, expressiveness, writing evaluation, acrobatic addition, and acrobatics standard. Third, it was revealed that the freestyle poomsae game's development plan in freestyle poomsae's mind needed to find direction for development of development possibility, improve regulations, separate scoring, oppose scoring separation, strengthen professionalism of judges, strengthen identity, and standard of scoring.

Key words: Free style poomsae, judgement, scoring regulation, development plan

논문투고일 : 2019.12.31.

심사일 : 2020.01.15.

심사완료일 : 2020.01.30.